

## EAI 여론분석센터

### 작 성 자

김준석  
동국대학교

이 메모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 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동아시아연구원

© EAI 2012

[www.eai.or.kr](http://www.eai.or.kr)

## 대선후보 호감도의 주요 특징

본 보고서의 자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준수를 위해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2012 대선패널 4차 조사”의 결과자료(참여 패널 1,412명) 중 11일과 12일의 결과자료(참여 패널 1,308명)만을 사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최종 조사결과는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선4차 패널조사에서 0에서 10점으로 하여 정치인 호감도 조사결과 중 좋아한다를 나타내는 6~10점으로 답한 비율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응답비율(59.6%)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응답비율(49.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 후보에 대한 호오가 뚜렷한 것과 비교하여 문 후보의 경우에는 열성적 지지층도 없고 반대로 적극 반대층도 없는 ‘무색무취’의 후보로 보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호불호가 뚜렷한 박근혜 후보 호감도

박근혜 후보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은 문재인 후보보다 뚜렷하다. 세대로 보면 50대의 64.0%, 60세 이상의 76.5%가 박 후보에 호감을 보인 반면,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32.2%, 36.5%정도에 그쳤다. 특히 박 후보에 대해선 극단적 지지와 배척 계층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 50대의 18.4%, 60세 이상의 33.3%가 박 후보를 ‘매우 좋아한다’(10점)는 열광적 지지를 보인 반면, 20대 중 20.6%가 박 후보를 ‘매우 싫어한다’(0점)고 답했다. 30대(15.7%), 40대(15.3%) 중에서도 박 후보에 대한 미움(0점)은 두 자리 수로 나타났다.

박 후보에 대해 무조건적 ‘매우 미움’을(0점) 표시한 유권자 계층을 보면 직업에 있어선 학생(23.3%)과 사무·관리·전문직(20.3%)의 비중이 높았고 거주 지역에선 호남(21.4%)이 그리고 이념성향에선

진보(23.6%)를 표방한 응답자가 많았다. 정당지지에선 민주통합당(22.4%) 지지자의 박 후보에 대한 ‘매우 싫어한다’(0점)의 응답이 많았다.

### 무난한 문재인 후보 호감도

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6~10점)은 20대 (67.1%), 30대(69.3%), 40대(69.3%)에서 높았지만, 50대(50.7%)에서도 절반을 넘었다. 60대의 문 후보에 대한 호감은 40.2% 정도지만 0~4점의 싫어하는 비중도 28.8%로 높지 않았다. 문 후보에 대해선 열광적 지지층도 극단적 미움을 보이는 유권자도 많지 않았다. 문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20대~40대에서 ‘매우 좋아한다’(10점)고 응답한 유권자는 모두 7% 미만에 불과했다. 반면 문 후보를 ‘매우 싫어하다’는 극단적 미움(0점)을 표시한 유권자는 60대(9.9%)를 제외하곤 4% 미만이었다.

문 후보를 매우 싫어(0점)하는 응답자는 농업·임업·어업 종사자(10.8%)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학력, 소득, 거주 지역에서도 두 자리 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도 문 후보를 ‘매우 싫어한다’(0점)고 답한 응답비율이 4.5%였고 박 후보 지지자의 문 후보 혐오(0점)는 7.9%, 새누리당 지지자의 문 후보 혐오(0점)도 9%로 한 자리 수였다.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자 중 ‘매우 좋아한다’(10점)고 답한 응답비율의 비중도 18.9%로 높지 않았다.

### 박 후보 지지자의 안철수 전 후보 비토

박근혜 후보 지지층의 미움은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전 후보를 향한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 전체의 안 전 후보에 대한 비호감(0~4점)은 26.5%로 박근혜 후보(32.1%) 보다는 낮았으나 야당후보인 문재인 후보(17.2%)보다 높았다. 60대 이상의 절반 이상(50.1%)이 안 전 후보를 싫어한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싫어한다’(0점)며 극단적 비호감을 나타낸 응답도 32.6%에 달했다. 안 전 후보에 대한 극단적

미움을 표시한 응답자는 박 후보 지지자의 23.2%, 새누리당 지지자의 27.2%에 달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표현이 2012년 대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일까? 아니면 문 후보가 강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것일까? 대선이 ‘박-문’의 양자대결로 좁혀진지 한 달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가 문 후보를 가리는 ‘안철수’ 변수는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1] 정치인 호감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매우 싫음				좋지도 싫지도 않음				매우 좋음			
	박근혜	12.6	2.1	4.4	8.3	4.8	17.9	8.7	9.9	12.3	6.0	13.0
문재인	3.9	1.1	2.0	4.0	6.2	22.6	14.0	17.9	16.2	5.1	6.3	
안철수	11.4	1.2	2.6	6.7	4.7	21.5	9.7	13.7	12.7	7.2	5.2	

[표 2] 정치인에 대한 극단적인 애증을 표시한 응답자의 세대별 비중 (전체 응답 중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매우싫다	매우좋다	매우싫다	매우좋다	매우싫다	매우좋다
20대	20.6	1.5	1.8	5.4	2.2	5.7
30대	15.7	4.7	1.9	6.7	2.1	5.4
40대	15.3	7.2	2.7	5.1	5.9	6.1
50대	8.3	18.4	3.2	8.4	14.2	4.5
60대	3.1	33.3	9.9	6.1	32.6	4.0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대선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대선패널조사" 를 진행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총선 1차 조사	총선 2차 조사	대선 1차 조사	대선 2차 조사	대선 3차 조사	대선 4차 조사	대선 5차 7차 조사
3.29 선거 운동 개시	4.11 총선 직후	대선 D-150	대선 D-60	대선 D-20	대선 D-7	12.19 대선 직후
패널특성과 투표행태	투표행태와 요인	지지도와 인물요인	표의 이동과 원인	무당파 변동과 이슈	선거예측과 미디어	선거평가와 국정전망

###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현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 대선4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12월 11 - 12일 (2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308명
표본추출	지역 · 성 · 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2.7%
패널유지율	65.4% (최초 패널 2,000명 기준)